

“골든타임 100일” 광주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출범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서 현판식
국정과제 수립까지 전략 거점
실·국 협력 사안·정책별 TF 대응
강 시장 “실질성과 창출에 총력”

광주광역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서울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에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준호

·전진숙·박군택 국회의원, 김형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가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 골든타임’을 활용해 광주 대선공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국정과제 마련에 나선 만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춘 전략적 조직 재편에 나섰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채택된 △광주시 7대 지역공약

△자치구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이 중심이 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전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서울상황실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는 대외협력의 핵심 창구 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100일의 집중 활동기간 동안 국정과제 반영 실무 대응, 정당·정부와 실시간 정책협의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전략적 조직 운영을 통해 새 정부 골든타임을 확실히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중앙정부 경험이 풍부한 강기정 시장을 필두로 정책별로 실국장과 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등이 TF 방식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전방위 협력을 펼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초기 100일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비상(飛翔)의 시간이다”며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미래전략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 광주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이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시,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42대 긴급 투입

시내버스 노조 파업 장기화
14개 노선 투입… 시민불편 해소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시수송버스(전세버스) 42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18일부터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 혼잡도가 높은 14개 노선에 전세버스 42대를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는 배차간격이 길고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무료 비상수송차량을 운영한다.

투입 노선은 △순환01 △수완03 △매월06 △진월17 △송정19 △매월26 △일곡28 △첨단30 △송암31 △봉선37 △일곡38 △문흥39 △금호46 △송암47 등 14개 노선이다.

광주시는 이날 전세버스 투입으로 해당

노선의 출근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평균 43분에서 21분으로, 퇴근시간 배차간격은 기존 평균 48분에서 25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에는 공무원이 동승해 정류소 도착 안내, 탑승객 승하차 등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 100대 이상의 대체차량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전세버스는 긴급 도입된 차량으로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상이기자



맨홀 점검 광주 북구청 하천방재과 하수팀 직원들이 17일 장마철을 앞두고 북구청 교차로에서 전대정문 구간에 설치된 맨홀 추락방지 안전망 점검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에너지·AI’ 공공기관, 광주·전남 이전 실현돼야…

■1면서 계속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가족 단위 이주를 꺼리면서 주말 공동화 현상, 교육·문화 시설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연계 교통망, 정주인센티브 제도 등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 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단지 자리 이동이 아니라 권한과 기회의 재배분”이라며 “지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역 활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인 박군택(광산갑)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이 산업과 인재를 스스로 키워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농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문금주(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농협의 경우, 서울시의 2023년 기준 농가인구는 1만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역사무소를 둘 때 균형발전을 고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제18회 명품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힐링 라이딩 하세요!

영산강 자전거대행진

전남일보사는 광주·전남 시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과 함께 영산강 자전거길을 달리게 될 ‘제18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을 오는 6월 28일 개최합니다.

코스는 송촌보~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구간을 왕복합니다.

참가자는 자전거와 헬멧 등 개인 장비를 지참해야 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호남의 명품 자전거길을 달리는 자전거 대행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5년 6월 28일 (토) 오전 9시 집결 (송촌보 영산강문화관)
구간	송촌보 문화관 뒤 광장 ~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24Km)
신청기간	2025년 6월 5일 (목) ~ 6월 23일 (월)
인원	선착순 150명
주최 주관	全南日報 전일엔컬스
후원	전라남도
참가비	무료 (기념품 제공)
문의/신청	062-519-0730 (www.jnilbo.com)